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한경협 ESG Bulletin

2026. 10 | 제 30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콕 집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협 더하기창업 기획시리즈 ②

긴 호흡이 필요한 기술에, 짧게 도는 돈

- 딥테크 창업을 조급하게 하는 자본

전화성 한국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스타트업에 투자한 지 오래되면서 한 가지 역설을 자주 목격한다. 기술의 난도가 높을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자본은 오히려 더 빨리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제품을 출시한 뒤 몇 달 안에도 고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 첨단소재, 로봇, 반도체, 우주·항공과 같은 딥테크는 다르다. 연구개발과 실증, 인증, 양산을 거쳐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처럼 긴 호흡의 기술을 상대적으로 짧은 호흡의 자본으로 키워왔다.

한국 벤처투자 시장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8조8,67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3%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도 8조4,366억원으로

33.0% 증가했다. 정부도 올해 모태펀드를 통해 AI·딥테크를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단순히 '벤처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다. '어떤 돈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벤처펀드에는 만기가 있고 운용사는 그 안에서 투자와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장의 규율을 위해 필요한 구조다. 그러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기업에도 같은 시간표가 적용되면 문제가 생긴다. 기술의 잠재력보다 다음 투자 라운드가 가능한지, 몇 년 안에 IPO나 M&A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자가 기술의 시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시간표를 따라가게 되는 역전이 발생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AI·딥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의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유니콘과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투자체계를 강화했다.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자금만으로 딥테크의 긴 시간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다음 단계는 민간 장기자본이다.

연기금과 공제회, 금융기관을 비롯한 장기 기관자금이 벤처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금융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본이 그 뒤를 이어야 벤처시장의 규모뿐 아니라 자본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후속투자가 필요한 딥테크에는 이런 변화가 중요하다.

두 번째 축은 대기업이다.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기업은 단순한 투자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검증할 실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첫 번째 대형 고객이 될 수도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시장으로 연결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CVC와 오픈이노베이션은 단순한 자금 공급 수단이 아니다. 기술과 시장 사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산업 인프라다.

건전한 투자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전략적 벤처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수시장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모든 스타트업이 IPO까지 가야만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는 창업자도 투자자도 긴 시간을 견디기 어렵다. 세컨더리 시장에서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새로운 장기 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M&A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계속 성장하면서 초기 투자자는 적절한 시점에 회수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를 통해 M&A·세컨더리 전용펀드 3,0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딥테크 경쟁은 결국 시간의 경쟁이다.

세계적인 혁신기업이 탄생하려면 좋은 기술과 뛰어난 창업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과 투자자가 그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한국도 이제 벤처투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자본의 질과 시간'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자금은 더 긴 시간을 설계하고, 민간 장기자본은 벤처시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대기업은 CVC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함께하고, 세컨더리와 M&A 시장은 그 사이에서 자본이 다시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좋은 기술을 빨리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기술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딥테크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은 자본이다. 기술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자본이 많아질 때, 한국에서도 10년 뒤 세계시장을 바꿀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다.

Copyrigh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ll Rights Reserved.